

2006년 10월 20일 (금)	국회의원 유필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실천의지 결여된 공허한 철도공사의 자구노력

- 감사원의 권고와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철도공사의 대책 -

■ 현 황

-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5년 12월, 감사원으로부터 출자회사의 설립·운영실태에 관해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로 15개 출자회사를 8개로 줄이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계열회사를 9개로 줄이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 감사원의 계열회사 개편 권고안과 철도공사의 개편안 비교

감사원 권고		조 정		철도공사(안)	
회사명	회사수			회사수	회사명
(주)코레일로지스	7	유 지	7	(주)코레일로지스	
(주)코레일애드컴				(주)코레일애드컴	
(주)한국철도유통				(주)한국철도유통	
(주)한국철도전기시스템				(주)한국철도전기시스템	
(주)코레일엔지니어링				(주)코레일엔지니어링	
(주)한국철도시설산업				(주)한국철도시설산업	
(주)한국철도개발				(주)KTX관광레저	
(주)파발마 + (주)KSN + (주)IP&C	2	통 · 폐합	1	(주)파발마 + (주)한국철도개발	
				(주)KSN + (주)IP&C	
(주)철도산업개발	-	지분 매각 또는 청산	-	(주)철도산업개발	
한국철도종합서비스				한국철도종합서비스	
(주)브이캐시		청산	-	(주)브이캐시	
(주)KTX관광레저				(주)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	
(주)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					
유지: 8개 계열사		합 계		유지: 9개 계열사	

- 철도공사는 아울러, 2006년 3월, “출자회사 구조조정(개편)”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¹⁾을 발주하여, 15개 계열사를 12개로 개편²⁾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받은 바 있다.
- 철도공사는 2005년 현재, 12조 4,517억원에 달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토지는 5조 1,570억원, 건물은 1조 881억원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철도공사의 요약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2003년	2004년	2005년	비고
(자 산)				
1. 유동자산	1,433,625	651,752	1,368,415	
- 당좌자산	1,327,356	510,657	1,163,775	
- 재고자산	106,269	141,095	204,640	
2. 고정자산	127,327,026	10,402,380	12,687,046	
- 투자자산	298,808	151,526	223,701	
- 유형자산	127,004,102	10,250,854	12,451,653	
- 무형자산	24,116	0	1,063	
- 리스자산			10,629	
자 산 합 계	28,760,651	11,054,132	14,055,461	
(부 채)				
1. 유동부채	3,355,466	878,504	1,683,047	
2. 고정부채	1,201,521	3,951,432	4,116,392	
부 채 합 계	4,556,987	4,829,936	5,799,439	
(자 본)				
1. 자본금	64,990	64,990	8,640,819	
2. 자본잉여금	26,222,855	8,416,307	0	
3. 자본조정	0	0	222,151	
4. 이익잉여금	△2,084,181	△2,257,101	△606,948	
자 본 합 계	24,203,664	6,224,196	8,256,022	
부채와자본합계	28,760,651	11,054,132	14,055,461	

1) 수행기관: 한국제이마크(주), 계약금액: 8,960만원, 계약기간: 60일

2) 유지 10개사, 통합(2→1), 휴면법인1, 지분매각1, 청산1

■ 문 제 점

☑ 계열사 개편안에 담겨있는 눈속임.

- 감사원의 권고안과 철도공사의 개편안을 비교해보면, 1개 계열사만 더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그 차이를 (주)KTX관광레저에만 국한해서 설명³⁾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속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원은 3개 회사를 1개 회사로 통·폐합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여기에 (주)한국철도개발을 끼워넣어 4개 회사를 2개 회사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⁴⁾ 감사원이 3개 회사를 1개로 통합하라는 것은, 해당회사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거나 불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를 2개 회사로 통·폐합하는 것은 역시 중복업무가 남아 있다는 의미. 알팍한 눈속임으로, 통합 회사 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철도공사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감사원 권고		조 정	철도공사(안)	
회사명	회사수		회사수	회사명
(주)파발마 + (주)KSN + (주)IP&C	1	통 · 폐합	2	(주)파발마 + (주)한국철도개발 + (주)KSN + (주)IP&C

☑ 무엇을 위한 연구용역인가

- 한국철도공사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서('05년 12월)를 받은 이후, 해당 내용과 동일한 연구용역('06년 3월)을 발주한다. 중복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훨씬 느슨하다.⁵⁾ 감사원의 감사·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용역비(약 8,700만원)를 들여, 훨씬 느슨한 내용의 개편안을 준비한 것은, 철도공사가 계열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3) 감사원의 감사시점보다 경영상태가 호전되었고, 흑자기조로 돌아섰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4) 이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당 자료에는 KTX관광레저(주)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통·폐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5) 감사원의 권고가 15개 계열사를 8개사로 줄이는 내용이었지만, 연구용역은 12개로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위한 대책이 아니겠는가. 결국 철도공사의 개편안은 감사원의 권고에 가까운 내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용역이 비용 낭비였다는 결론이 된다.

☑ 경영상태 개선의 의지는 있는가

- 철도공사의 자구노력 추진 계획은 크게 ① 대대적인 계열사 정비 ② 인력 운용 및 적자역 효율화 ③ 역세권 개발로 요약된다. 하지만, 계열사 정비는 감사원 권고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며, 인력운영 효율화와 역세권 개발 등은 추상적이거나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 철도공사의 부채는 약 5조 8천억 원⁶⁾, 이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이러한 만성부채에 대해 요지부동이다. 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6조원을 상회하며, 직접적인 철도운영과 관계없는 부동산들만 매각해도 부채상환은 큰 진전을 보이겠지만,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손익계산서 상 고정자산처분손 0⁸⁾)

■ 정책대안

- 철도공사는 눈속임으로 계열사를 보존하려 하지 말고, 자신들의 표현처럼 “뼈를 깎는” 심정⁹⁾으로, 중복되거나 철도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를 정리하는 개편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감사원 감사자료에 대한 어설픈 대응논리 개발에 돈을 쓰기보다 철도공사 및 계열사 경영개선에 효율적 방향으로 예산을 써야 한다.
- 그리고, 보유 자산 가운데, 철도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은 매각 등의 방법으로 부채 상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6) 2005년 기준 5조 7,994억 3,900만 원

7) 2003년 4조 5,570억 원이던 부채가 2005년에는 5조 7,995억 원으로, 2년 새 1조 2,425억 원이나 급증했다.

8) 국정감사 요구자료 557페이지 내용

9) 한국철도공사에서 발표한 “정부의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철도공사의 입장 및 향후 추진 계획” 3면 문구 인용